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7월 24일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영화 및 텔레비전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서명

이 새로운 법은 영화 편집 작업 일자리를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 10억 달러의 세금 공제액 및 7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이 발생했으며, 5십2만2천건의 고용이 창출된 바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영화 편집 활동을 뉴욕주로 유치하기 위해 뉴욕주가 현재 제공하는 장려책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가 2004년에 영화 및 텔레비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영화 제작자들은 뉴욕주에서 70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오늘 서명한 새로운 법안은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영화 편집 활동을 유치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둔 주정부 지원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활동을 뉴욕주로 유치하기 위한 뉴욕주의 장려책 프로그램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주었고 수십만 건의 고용을 지원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업계는 주 전역에 걸쳐 여러 커뮤니티에 새로운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주가 세계의 텔레비전 및 영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 뉴욕주는 전국의 제작자, 감독 및 편집기사들이 이곳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와서 영화 편집 작업을 하도록 초청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뉴욕(New York supports business) 캠페인 및 이번 법령은 뉴욕주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원하는 사업체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법안의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화 편집 작업에는 촬영이 완료된 후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특수 시각 효과, 색채 교정, 음향 편집 및 음향 조정과 함께 공학 기술자와 배달부에서부터 보조 직원 및 창의적 요원에 이르기까지 이 업계에 관련된 수천 종의 기타 일자리들이 관련됩니다. 2010년에 확립된 이후, 뉴욕주의 영화 편집 작업 장려책 프로그램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으며,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10퍼센의 세금 공제에도 불구하고 단지 19건의 신청 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법령은 뉴욕주에서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뉴욕주에서 편집 작업을 하는 영화에 제공되는 적격한 영화 제작자의 세금 공제 비율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 새로운 법령 하에서, 적격한 영화 및 텔레비전 편집 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는 뉴욕시 그리고 Dutchess, Nassau, Orange, Putnam, Rockland,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를 포함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통근자 구역 내에서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에 이릅니다. 뉴욕주의 다른 장소에서 편집 활동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5퍼센트(총 35퍼센트)의 추가적인 세금 공제가 제공될 것입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의 편집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5퍼센트의 세금 공제는 뉴욕주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 및 새로운 시설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John A. DeFrancisco 상원의원은 "영화 편집 작업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목적은 영화 업계가 뉴욕주에서 편집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제 혜택은 그 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영화 편집 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의 비율을 증가시켜 주며, 뉴욕주 전역에 걸쳐 이러한 자금의 활용을 크게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 법령은 영화 제작사들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Cuomo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영화 세금 공제에 대한 이 조절은 더욱 많은 영화들과 TV 쇼들이 제작되고 있는 이곳 뉴욕주에서 더 많은 영화 편집 작업이 수행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일자리는 창의력의 중심지인 이곳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므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영화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20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 편집 작업 세금 공제액인 7백만 달러를 포함해 4억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727건의 세금 공제 신청이 있었으며,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113억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소비될 것입니다. 727개의 프로젝트 중, 현재까지 473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완료된 프로젝트들에 제공된 총 공제 금액은 10억4천만 달러이며, 이 프로젝트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가치는 75억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2011년에, 뉴욕주는 135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15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의 경우, 지금까지 뉴욕주는 88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14억6천만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4년 이후, 영화 및 텔레비전 업계는 세금 공제 프로그램으로 인해 뉴욕주에서 5십2만2천건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많은 주요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사들은 뉴욕주에서 촬영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주요 요인이 뉴욕주의 세금 공제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새로운 법은 현존하는 장려책을 강화시키며, 주 전역의 여러 커뮤니티로 이러한 투자를 유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Korean

Deluxe사의 창의적 서비스 담당 부사장 겸 Post New York Alliance사의 사장인 Marcelo Gandola는 "법으로 서명된 이 장려책은 주 전역의 여러 회사들을 비롯해 기타 수많은 편집 시설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함으로 인해 영화 편집 업계의 성장 기회가 가속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들은 우리의 교육 활동을 강화시켜 우리 업계의 확장을 도울 숙련된 인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인력을 고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영화 편집 제작 회계 회사인 Trevanna Post사의 Yana Collins Lehman 전무이사는 "뉴욕주는 영화 편집 활동 장려 세금 공제 비율을 30퍼센트로(북부 뉴욕의 경우 35센트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Cuomo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매우 경쟁적인 영화 및 TV 편집 업계의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이제 영화 및 TV 편집 활동을 위한 목적지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뉴욕주 전역에 걸쳐 수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즉시 발효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